

##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 A new year's greeting message



경만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Man Ho Kyung, MD | President, Korean Medical Association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2년 임진년(壬辰年)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용의 자태처럼, 올 한해 의료계도 그간의 부진함을 딛고 비상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의업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 2011년 한 해는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임기 후반에 접어든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가 상임진 구성을 재편하고 새로운 각오로 회무에 임해왔습니다. 3년 내내 한시도 고삐를 늦춘 적이 없었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때라는 사명감에 더욱 가열찬 행보를 이어온 한 해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우리 협회 최대 과제인 1차의료 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

습니다. 1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한편,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및 환자의 의뢰·회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치의제로 가기 위해 정부가 꺼낸 선택의원제를 사실상 철회시키고, 동네의원을 찾는 만성질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을 낮춰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막는 방안을 도출해냈으며, 3년 평균 최고의 수가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불합리한 하위법령 입법 예고안을 철회케 하고,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불합리한 현행 수가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입법(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밖에 30년전 제정되어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에서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분리시켜내기 위한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 응급의료시 환자들이 진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의료기사 등으로 까지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무장 병원으로 피해를 입는 의사를 구제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함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집행부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건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서입니다. 머리 조아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집행부는 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페이스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우선, 만성질환자 관리체계에 대한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료계가 반대했던 이유가 '선택과 등록, 환자관리표 제출, 교육, 신규의사 진입장벽' 등의 독소 조항 때문이었는데, 이 사항들이 완전히 삭제된 만큼, 이제 부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조만간에 건강보험 재정통합 관련 현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비효율·고비용체제인 현행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동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의 판결이 건보제도의 근본적 해결을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신호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장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의협이 앞장설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모든 사항들을 마무리하는 작업과 동시에, 차기 집행부에도 부드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회무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집행부는 2012년 새해를 전망하는 4자성어로 '수적천석(水滴穿石)'이라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입니다. 의료현실이 마치 거대한 바위와 같이 느껴지지만, 안내와 끈기, 의지와 정성으로 일관할 때 그 바위에 분명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이 담긴 말입니다.

2012년은 국가적으로는 총선과 대선이 있고, 의료계에서는 의협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등 안팎으로 중차대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격동의 한 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가 화두가 되는 만큼 보건의료 정책에서도 이와 관련된 제안들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정책들도 세간에 회자될 것입니다. 바로 이 때가 우리 의사들이 움직여야 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의협은 회원들의 선거참여에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여러분과 함께 움직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집행부가 동반자가 되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만 우리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2012년은 우리 의사들의 힘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의사사회의 성숙을 다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좌절을 딛고 일어나, 일심동체로 화합하여 불합리한 제도들과 맞서 싸우고, 의사의 자존심과 의료의 위상을 다시 세웁시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1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배상